

# 野, 김명수·최양희 '정조준'...막바지 검증공세

## 김, 불성실 강의·연구비 중복수령 의혹 최, 다운계약서 작성...1억여원 탈세 등

지난달 29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이어 오는 7~11일 나머지 박근혜정부 2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을 표적 삼아 검증공세를 집중 퍼부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자고나면 의혹이고, 최양희 후보자도 줄줄이 의혹투성이"라며 "병역 의무 중 프랑스 유학과 미국 연수라는 2중 특혜, 농지법 위반, 다운계약서 의혹 등이 꼬리를 문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자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제자 논문을 요약해 '둘러마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교육전문직의 직능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연구 종료 하루 전 제자의 석사논문 제목인 '교사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으로 과제명을 변경하고 제자 논문을 요약해 270만원을 지원받았다.

박홍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학교에서 정한 최소 기준 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를 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대 감사에서 모두 5건을 적발당해 4건의 주의,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한국교원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는 2003년과 2004년 교육부로부터 동일한 주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각 4000만원,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며 "전년도 연구를 청산 수준으로 재탕하면서 2000만원의 연구비를 중복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전날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적한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는 반포동 아파트 양도소득세로 1368만원을, 방배동 아파트 취득세로 1218만원을 각각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내야 할 세금보다 총 1억1438만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2002년 최 후보자가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0원'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면서 "분양가 5억원의 강남권 아파트를 조건 없이 증여할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 "사실 무근"이라면서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증여받거나 거주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수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 후보자의 딸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헌터로 4개월간 재직했다"며 "정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략공천' 어수선한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 허동준 동장을 지역위원장(왼쪽)이 3일 국회 대표실 앞에서 주승용 사무총장에게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 순천·곡성 경선 공정성 논란 구희승 무소속 출마 등 갈등 표면화

## 고재경·김영득 재심신청 수용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인단 선호투표제' 경선 방식이 공정성 논란을 빚으면서 일부 후보가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구희승 예비후보는 3일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방식인 '선거인단 선호투표제'의 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앙당 지도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에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순천·곡성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조순용 예비후보는 이날 중앙당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앙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 등에 유선전화를 이용한 공천 관련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모집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

인단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조직을 동원해 불법적인 등으로 극히 편향된 선거인단이 모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경선 방식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탈당 사태까지 빚어짐에 따라 오는 6일 실시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경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차 경선에 탈락했던 고재경, 김영득 후보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오전 새정치연합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고재경, 김영득 후보의 경선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순천·곡성 선거구에서는 고재경 전 국회보좌관, 김영득 전 부대변인, 노규권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의원, 조순용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 5명의 후보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새정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여야 각각 6인씩 추천한 인사에다가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3인을 더해 15인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 등을 비롯해 사고 당시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을

조사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보상 대책과 함께 유사 재난을 방지할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법은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하고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했다.

당은 위원회에 감사 및 징계 요구권을 주는 한편, 위원회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 당권레이스 스타트...친박이나 비박이나

## 후보등록... '2강-3중-4약'

새누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가 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막을 올렸다.

후보들은 이날 후보등록과 함께 전당대회 당일인 14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했다.

친박(친박근혜)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좌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

해 이인제·홍문종·김태호·김영우·김을동·김상민 의원과 박창달 전 의원 등 총 9명이 이날 후보등록을 마쳐 최종 당권주자로 확정됐다.

후보등록 후 예비별기를 통해 김태호 1번, 김무성 2번, 이인제 3번, 박창달 4번, 김을동 5번, 홍문종 6번, 김영우 7번, 서청원 8번, 김상민 9번의 기호를 각각 배정받았다. 대표최고위원을 포함해 총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할 이번 전당대회의 당권경쟁 판세는 대체로 '2강-3중-4약'으로 분석

된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이 유력 당권주자로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6선의 이인제 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 홍문종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40대 역할론'을 내세운 김영우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인 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김을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예약한 상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체 20만명 인원의 당원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 2표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대표최고위원으로, 나머지 4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전국 권역별로 합동 유세와 TV 토론회가 치러지며 7월13일 당원선거인단 및 청년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다음날인 14일 전당대회장에서 전당대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전당대회 현장에서 한꺼번에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당 전당대회 선관위 4일 오전 11시 각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 서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지지율 30%대로 급락

## 리서치뷰 조사...출범이후 최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3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3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6.1%로 떨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율(36.4%)보다 낮게 나타났다.

리서치뷰는 이날 1, 2일 이들 동안 전

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방선거 전날 대비 10.8%포인트나 급락했지만 부정적 평가가 11.3%포인트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잘못된다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50대와 60대에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아직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로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로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